

중국, 41개 AI 교통 시나리오 실증으로 교통 전 분야 인공지능 확산 본격화

해당국가	중국	기관(기업)	교통운수부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로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중국 교통운수부는 교통 전 분야에 AI 적용을 확산하기 위한 「인공지능+교통운수 시나리오 혁신 행동」을 본격화하고 10대 추진방향과 41개 우선 적용 시나리오를 제시

- 교통 현장을 AI 기술의 실증·적용 공간으로 개방하여 기술기업과 교통 운영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, AI 기술의 현장 검증과 확산을 촉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
 - AI 기업의 실증현장 부족과 교통기관의 검증기술 확보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·항만·철도·항공·우편 등 실제 교통 인프라를 기술 검증과 적용에 활용
 - 2030년까지 활용가치가 높은 AI 적용 시나리오와 우수 모델을 확보하고, 지능형 인프라·장비·서비스를 연계한 교통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
- 기술성숙도에 따라 ‘확산·시범·핵심기술 개발’로 추진방식을 구분하여 기술성숙도에 따른 현장 적용과 연구개발을 병행
 - 검증된 기술은 현장 보급을 확대하고 유망 기술은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성을 검증하며, 핵심 기술은 AI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과 교통 현장 실증을 연계
 - 기술성숙도와 현장 적용성, 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정책·표준과 연계하여 교통 분야 AI 기술의 확산을 지원

□ 자율주행·스마트도로를 비롯해 철도·수운·항공·우편까지 포괄하는 10대 방향을 설정하고 860개 후보 중 41개 시나리오를 우선 실증 대상으로 선정

- 첫 41개 시나리오는 대중교통 운영, 도로안전, 물류·화물운송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적용목표와 성과평가 기준을 구체화
 - 통합교통서비스, 버스 지능형 배차, 고속도로 안개 조기경보, 중량화물차 자율주행 등 국민 체감성과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우선 적용
 - 시나리오별 구축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실증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지역과 교통시설로 확산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
- AI 활용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품질 교통데이터 구축과 안전관리 기준을 병행하여 교통 AI 확산을 위한 공통 기반을 강화
 - 국가데이터국과 협력해 공공·민간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고품질 데이터셋과 데이터 자원체계를 구축하고 AI 학습·실증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
 - AI 적용 전 과정의 안전기준과 데이터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후속 시나리오 발굴과 실증성과 확산을 연계하여 교통 AI 기술의 지속적인 확산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

※ 출처 : 交通运输部(2026.8.20), 交通运输部举行专题新闻发布会 介绍“人工智能+交通运输”典型应用场景创新行动有关情况